

여성서사의 원천과 정치성에 관한 해석의 지도 : 젠더지리학으로 읽는 박완서 문학과 연구

권 영 빈*

차 례

1. 여성이라는 오지(奧地)를 탐구하는 방법으로서의 박완서 문학
2. 문학 연구에서 '젠더의 지리'라는 방법론적 곤경과 활로
3. 재현과 체현 사이: '문밖의식'을 말하는 방식에 관하여
4. '집'이라는 전시 구조와 '여성'이라는 불안
5. 박완서 문학-연구라는 여성주의 지식 생산의 지리

국문초록

이 글은 젠더지리학의 관점을 활용하여 한국 여성서사의 원천과 정치성을 드러내는 문학-해석의 조응 양상과 새로운 읽기의 방식을 탐색한다. '페미니즘 리부트'의 촉매제로 부상한 여성서사는 여성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반영할 뿐 아니라 이를 형성하는 데에도 관여하며, 이러한 여성서사의 생산·유통·연구·비평은 여성에 대해 읽고, 쓰고, 말하는 행위와 방법론을 요청하는 사회 현실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박완서 문학과 그에 대한 연구는 거대한 폭력 속에서 살아남은 여성의 삶, 가

* 동아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초빙교수

부장제하의 모녀 관계, 결혼과 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장치의 실체, 여성 신체와 섹슈얼리티 등 동시대 여성서사의 핵심 주제를 공론화해 왔으며, 여성의 이야기를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것으로 간주해 공적 지식과 담론장에서 배제해 온 문학·문화사에 대한 비판적 재조명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한국 근대성과 결합된 젠더 정치를 신체 주체와 공간의 속성으로 쟁점화하는 연구에 주목하여 박완서 문학을 둘러싼 해석의 지도를 그리고자 한다.

한편 젠더지리학은 여성의 몸을 포함한 공간과 주체성의 문제를 탐구하는 박완서 문학과, 이를 바탕으로 여성주의에 입각한 앎과 지식을 논하는 연구를 함께 읽어내는 데 유효한 방법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문학과 젠더의 지리가 어떻게 교차하고 구성되는지를 분석하고 문학 연구에서 ‘젠더의 지리’라는 방법론의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한다. 선행연구가 주로 작품 내 젠더 공간을 분석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 글은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문학, 연구, 방법론을 상호 연계하여 고찰한다. 이를 통해 박완서 문학을 형성하는 젠더 공간의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여성서사의 근거와 여성주의 실천의 토대를 재해석함으로써, 문학에서 여성적 장소와 지도 그리기(mapping)를 사유하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젠더지리학, 여성서사, 몸, 체현, 방법론, 지도, 메타비평

1. 여성이라는 오지(奧地)를 탐구하는 방법으로서의 박완서 문학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2」(1981)에는 화자의 노모가 골절 수술을 받은 직후 겪는 섬망 증상이 묘사되어 있다. 한국전쟁 당시, 한때 좌익운

중에 가담했던데다 의용군에서 도망친 오빠가 끝내 인민군에 발각되어 총을 맞는 날을 어머니는 병실에 누운 채 가수면 상태에서 다시 체험한다. 오빠를 구하려는 어머니의 몸부림은 딸인 ‘나’와 간호사가 함께 달려들어도 저지하기 힘들 만큼 대단한 완력이었고, 어머니의 환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딸은 결국 그의 뺨을 내리치는 패륜을 저지른다. 그러면서 절규한다. “사람 속의 오지는 아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라지만 어머니에게 그런 걱정이 숨겨져 있었을 줄이야.”¹⁾

딸이 미처 알지 못했던 어머니 속 오지는 혈육의 무참한 죽음을 함께 겪은 이들이 인식하는 전쟁 경험의 현재성/현장성에 관한 것이면서, 박완서 문학 전체를 아울러서도 주요하게 다뤄지는 화두라 할 수 있다. 그의 소설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이 단어는 주체가 의식적으로 닿을 수 없는 마음의 상태나 어떤 대상을 단면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할 때 동원된다.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1995)의 ‘나’는 울케와 단들이 경험한 피난의 고통이 “내 안의 오지”가 되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저물녘의 황혼』(1985)은 신체의 변용을 통해 자신의 주체성을 재정립하는 ‘화초 할머니’를 “인간 오지에 가 닿은 인물”로 표현한다. 박완서 문학에서 오지는 ‘알 수 없음’이라는 정동 차원의 의미를 지니며, 연구자들 또한 이러한 오지가 환기하는 박완서 문학의 미학적·정치적 특성에 유의하곤 했다.²⁾

한국문학 생산과 유통, 비평과 연구의 장에서 ‘여성서사’라는 주제와 담론이 재가시화된 지도 십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 박완서, 「엄마의 말뚝 2」, 『엄마의 말뚝』, 세계사, 2018, 131쪽.

2) 신수정은 박완서의 소설이 ‘마음의 오지’에 대한 관심에 정향돼 있으며 그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환상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말한다(신수정, 「자아의 서사, 소설의 기원: 진경시대 예술가의 초상」, 『저녁의 해후』(박완서), 문학동네, 2016). 권명아는 박완서 문학이 분단 체제하에서 내부 식민화되는 곳곳의 ‘오지’를 탐색하는 작업이자, 끝없이 오지의 자리를 할당받는 여성들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권명아, 「미래의 해석을 향해 열린, 우리 시대의 고전」, 『박완서 문학앨범』(박완서·호원숙 외), 웅진지식하우스, 2011).

박완서 문학을 떠올리는 일은 그것이 언제나 여성에 관한 것이었던 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자 한국 여성서사를 역사적으로 의미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박완서 문학은 여성의 눈으로 목격하고 관찰한, 한국 근대성에 관한 역사적 레퍼런스라 말할 수 있다. 여성의 삶과 현실을 장기간에 걸쳐 재현한 것도 우리 문학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당대 현실에 관한 날카로운 묘사와 비판적 시각을 소설 속에서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는 점이 보다 중요하다.

2010년대 한국문학이 맞은 분수령과 여성서사의 약진은 박완서 문학이 제기했던 여성에 관한 문제들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은 그간 축적되어 온 박완서 문학 연구이다. 박완서 문학과 연구가 오늘의 여성서사 담론장에서 일종의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작가가 재현한 여성의 삶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나/우리는 왜/어떻게 그러한 나/우리가 되었는가’라는 여성 존재를 향한 비판적 질문으로 말미암는다. 박완서 문학이 보여주는 오지의 정동은 그러한 질문(이자 답)의 형식이며, 그것을 당대성과 동시대성의 지평 속에서 온당하게 해석하는 연구(자)의 역할은 단지 학술장에 국한해서만 중요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페미니즘 연구와 여성주의 비평이 본격화되고 박완서 문학에 관한 여러 쟁점이 마련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래 박완서 문학 연구가 특별히 불황이었던 적은 없지만, 2010년대의 그것은 90년대와의 연속성만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단순하게는 여성 연구자가 늘고 여성문학 연구가 활기를 띠는 분위기 속에서 2011년 작가 타계를 계기로 그를 향한 (재)조명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여성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읽고, 쓰고, 말할 것인가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변화가 박완서(를 포함한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확장·다변화를 추동했다는 점도 분명히 말할 수 있다.³⁾ 단지 여성의 위치성이나 여성

3) 최진석·최세현·김병준·허예슬·최주찬·황호덕, 「두 박완서, 제도와 젠더 혹은

억압의 재현 양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비판적 논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사회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즉 여성과 사회 담론의 일환으로 박완서 문학에 접근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글은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역사적 삶에 관한 문제의식이 내장된 박완서의 작품과 2010년대 이후 박완서 문학 연구가 특별하게 조망하는 양상을 중심에 두고, 한국 여성서사 원천으로서의 박완서 문학이 지닌 특성과 연구의 의미를 함께 조망해 보고자 한다. 박완서 문학 자체가 여성의 삶에 관한 것이기에 ‘여성’을 말하지 않는 박완서 문학 연구는 거의 없지만, 이 글에서는 젠더지리학의 관점에 따라 여성의 신체 및 공간 경험에 대한 해석에 집중한 논문, 여성 주체성에 관한 연구의 지류를 형성하는 데 지표로 기능할 수 있는 논문에 주로 초점을 맞춘다.

이 글이 지리학의 방법론에 기대는 이유는 박완서 문학이 원체 여성의 몸을 포함한 공간과 주체(성)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는 점, 젠더지리학이 구체적 경관이나 문화예술작품, 담론을 (재)해석할 때 기존에 통용되던 차별적 시각을 비판하고 여성주의에 입각한 앎과 지식을 생성하고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의 작품과 연구를 동시에 읽기에 적절한 관점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 여성서사의 존재 의의와 해석의 방법론을 베푸는 데에도 젠더지리학은 유효한 개념 양식이 된다.

2장에서는 이 글의 핵심 관점인 젠더지리학과 문학 연구장에서의 쓰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문학 연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타진한다. 3장에서는 박완서 문학에서 여성의 지리적 경험과 공간성에 착목한 연구를 읽으면서 젠더지리학을 토대로 ‘문밖의

디지털 작가 연구의 시좌: 2010년대의 『여성문학연구』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34호,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24 참고. 이 논문은 2010년대 이후 박완서 문학 연구장에 나타난 질적 변화를 학술·인용 네트워크 추적을 통해 규명한다. 소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의 박완서 문학 연구를 메타적으로 살피는 데 좋은 참고가 된다.

식'에 접근하는 방식을 살핀다. 4장에서는 여성주의 스케일 정치를 보여주는 박완서의 작품과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 박완서 문학에서 가능한 '지도 그리기'의 방식을 탐색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토대로 박완서 문학과 연구가 한국 여성서사 담론을 견인하는 지점들을 여성에 관한 지식 생산의 지리라는 측면에서 조망한다.

이 글에서 젠더지리학은 박완서 문학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한 관점으로, 각 장에서 주목하는 논문은 그러한 읽기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 논문은 '젠더의 지리'라는 명칭을 내세우고 있지 않음에도 젠더지리학의 방법론을 보여주는데, 이 글은 이러한 연구들을 징검다리 삼아 한국 여성서사 담론의 지형을 넓히고 문학 연구에서 '젠더의 지리'라는 방법론적 근경과 활로를 확인하려는 목적 또한 갖는다. 이상의 작업을 통해 박완서 문학 속 여성의 삶과 '오지'의 정동에 관한 해석의 지도가 그려지고, 박완서 문학과 연구가 함께 오늘의 현실과 여성서사의 존재성을 다시금 비춰볼 수 있게 하는 비판적 도구로 제안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 취지이다.

2. 문학 연구에서 '젠더의 지리'라는 방법론적 근경과 활로

비판적 공간 이론인 젠더지리학은 분과학문 영역으로서의 지리학의 분과에서 시작해 다양한 분야에서 통용되는 연구의 방법이자 담론으로, 남성과 여성의 물질적 불평등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조직되는가를 밝히고 그러한 공간의 속성을 분석하려는 필요에 의해 형성되었다. '젠더'와 '지리'가 결합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젠더지리학은 그것이 출현한 1970-80년대 전후의 서구 페미니즘 이론과 젠더 연구의 발전사, 그리고 지리학 내부에서의 분화 역사와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에 관련 연구 주제나 접근법도 다양하다. 초기 젠더지리학은 전통적으로 지리학적

지식에서 배제된 공간들, 예컨대 여성의 신체나 집과 같은 미시적·사적(私的) 공간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면서 일터나 도시(로컬) 공간, 커뮤니티와 같은 공간에서의 경험을 해석하는 것에 집중했다. 아울러 단지 현실의 지리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에 머물지 않고 문학과 영화, 회화, 디자인, 건축과 같은 다양한 문화·예술 텍스트에 그려진 젠더의 지리에 주목해 언어와 상징, 재현의 방식, 주체 이론 등을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여성주의에 입각한 지식을 구성해 나아가고자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젠더’지리학은 페미니즘 인식론과 맥을 같이 하기에 공간적·지리적 요소를 필수로 하면서도 거의 항상 정체성과 권력의 문제를 다룬다. 단지 비가시화되어 있던 젠더화된 공간을 발굴하고 그 속의 주체의 행태를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가질 수 있는/없는 행위성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대항 공간을 발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이 젠더지리학 이론과 접근법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지리학이 다른 학문 영역에 비해 우리가 살아가는 물적 세계와 비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 아니라, 몸, 젠더, 권력이 만들어지는 기제와 반차별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을 탐구하는 페미니즘 인식론의 입장이 강조된 결과이다. 젠더지리학이 특정 공간이나 지리적 조건의 현재(현장)를 사유할 때 지배이데올로기의 역사적 양식이나 계보를 간과하지 않는 것도, 그것이 정체성과 권력의 역사를 사유하는 페미니즘을 자원으로 삼기 때문이다.

한편 ‘지리’학이 다른 공간 이론과 변별되는 지점은 ‘관계성’과 ‘구체성’에 있다. 지리는 지표 위에 고정된 공간이나 장소, 고정된 성질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공간과 공간 간의 관계, 장소와 장소 간의 마주침, 그리고 그 위에서 활동하며 공간과 장소의 의미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주체(성)와 위치(성)의 구체적 표현이다.⁴⁾ 예컨대 지구화 시대, 저개

4) 그러므로 지리학은 곧 지정학(geopolitics)이다. 분과학문으로서의 지정학은 주로 국제정치 이론 속에서 논의되지만, 지정학의 이해 자체가 영토를 둘러싼 투쟁이

발 국가 여성의 삶이 선진국 중산층 가정을 위한 돌봄노동이나 소위 ‘송금경제’의 메커니즘으로 재편되는 양상과 관련된 이주의 여성화, 글로벌 케어 체인(global care chain)과 같은 현상은 젠더지리학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젠더화된 이주·이동과 관련된 주제는 2000년대 모빌리티 이론의 출현과 확산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있다.

젠더지리학이 한국 연구장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2010년대로, 영미 페미니스트 지리학자의 1980-90년대 성과가 결집된 연구서가 일종의 개론서로 국내에 번역 출간된 것이 계기였다. 이들 저작에는 젠더지리학이라는 분야가 정립될 수밖에 없었던, 종래 학술장을 향한 문제 제기와 다양한 사례 연구는 물론 공간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구축하려는 시도들이 담겨 있다.⁵⁾ 여성학계나 지리학계는 조금 앞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입해 젠더화된 공간과 이동, 로컬리티, 몸과 장소의 역사적 관계에 주목한 연구를 선보였고⁶⁾ 이로부터 한국이라는 공간의 지정학적 위치

-
- 언제나 ‘상황구속적 지식’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세계를 ‘보는’ 방식에 관한 페미니스트 비판과 연결되어 있다(콜린 플린트, 한국지정학연구회 역,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길, 2007, 41-42쪽). 젠더지리학의 분석 대상이나 담론이 마르크스주의(페미니즘), 탈식민주의 및 퀴어 이론과 같은 정치적 위치성과 교차성에 관한 주제들과 긴밀히 관련되는 것도, 이들이 앞서 말한 페미니즘 인식론을 매개로 객관성·보편성·중립성을 둘러싼 몸들과 정체성의 지리를 비판적으로 탐사하는 일에 주된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 5) 린다 맥도웰, 여성과공간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한울, 2010; 질리언 로즈, 정현주 역,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한길사, 2011; 도린 매시,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도린 매시, 박경환·이영민·이용균 역, 『공간을 위하여』, 심산, 2016 등.
- 6) 김현미, 「페미니스트 지리학」, 『여/성이론』 제19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8; 황진태·정현주, 「이주, 젠더, 스케일: 페미니스트 이주 연구의 새로운 지형과 쟁점」, 『대한지리학회지』 제43권 제6호, 대한지리학회, 2008; 안숙영, 「젠더와 공간의 만남을 위한 시론」, 『여성학연구』 제21권 제2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1; 정현주, 「이주여성들의 역설적 공간: 억압과 저항의 매개체로서 공간성을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 접목시키기」, 『젠더와 문화』 제5권 1호, 계명대학교 여

와 그 안에서 발생한 정치적 격변, 사회·문화적 변천 속에는 젠더지리학의 접근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논의될 만한 지점들이 산적해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젠더지리학의 위와 같은 특성들, 다시 말해 정체성과 권력 문제와의 친착과 관계성과 구체성에의 착목은 ‘문학’ 연구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분석한 연구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젠더지리학이라는 말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출현한 201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발표되었으나⁷⁾ 여기에는 몇 가지 우려가

성학연구소, 2012; 안숙영, 「젠더, 공간 그리고 공간의 정치화: 시론 차원의 스케치」, 『여성학논집』 제29집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2; 정현주, 「다문화경계인으로서 이주여성들의 위치성에 대한 이론적 탐색: ‘경계시대’, 억압의 ‘교차성’, ‘변위’ 개념에 대한 검토 및 적용」, 『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2015; 황진태·정현주, 「페미니스트 공간연구에 다중스케일적 접근 적용하기: 여성운동연구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제50권 제1호, 대한지리학회, 2015 등.

- 7) ‘젠더(의) 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학술 논문을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영옥, 「이선희 소설에 나타난 동경과 가출의 젠더 지리」, 『한국언어문학』 제95집, 한국언어문학회, 2015; 송명희, 「나혜석 문학의 공간과 젠더 지리학: 소설과 희곡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6권 제3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정미숙, 「박완서 소설 『서있는 여자』의 젠더 지리학과 정체성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제17권 제1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차성연, 「만주 공간을 바라보는 남성적 시선과 여성 인물의 재현」, 『동남어문논집』 제41집, 동남어문학회, 2016; 홍혜원, 「‘집’의 장소성과 젠더: 염상섭의 『일대의 유업』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88권, 어문연구학회, 2016; 엄미옥, 「국경을 넘는 서사와 장소의 정치학: 『리나』와 『바리데기』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유인혁, 「범죄, 지리, 젠더: 김내성의 『마인』과 근대적 탐정소설의 세 가지 키워드」, 『여성문학연구』, 제4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권영빈,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탈)근대공간의 건축술: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성(開城)의 탄생」, 『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류진아, 「공간 인식과 여성에 대한 폭력: 하성란·조경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8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9; 유인혁, 「박완서의 『나목』에 나타난 여성의 탈장소와 이동성의 주체」, 『여성문학연구』, 제4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박선영, 「‘유펜(幽閉) 공간’과 ‘지연(遲延) 공간’: 나혜석의 글쓰기와 장소성(場所性)」, 『한국문예비

있다.

첫째로, 문학 속 ‘여성의 공간(장소)’을 분석하는 것이 젠더지리학의 주된 접근법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집(방, 부엌, 거실 등)이나 근린(정원, 공원 등)과 같은 생활세계에서 나타나는 여성(또는 남성) 인물의 공간 경험이나 장소의 상징성을 해석하는 경우인데(정미숙(2016), 홍혜원(2016), 류진아(2019), 김수지·김미영(2020), 최미정(2020; 2021; 2023), 박신혜(2025)) 나혜석부터 최은미까지 대상 작가 및 작품의 분포는 넓지만 분석의 결과는 특정 방향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 즉 공/사 이분법의 논리가 일상 공간에 연동되어 여성 억압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그러한 공간의 부정성이 여성에게 가부장제를 내면화하게 하는 한편으로 여성의 대항적 정체성을 발현하게 하는 계기가

평연구』 제65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20; 최미정, 「『신대륙』 여성수필의 공간과 젠더 지리」, 『한국문학과 예술』 제35집,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0; 김수지·김미영, 「젠더지리학을 통해 본 소설의 공간과 장소: 최은미의 「근린」, 「백 일 동안」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제83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0; 이은선, 「한국 ‘기지촌 소설’의 젠더 지리 연구: 2000년대 이후 여성 소설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제43권 8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이경재, 「이민진의 「파친코」에 대한 젠더지리학적 고찰」, 『춘원연구학보』 제22호, 춘원연구학회, 2021; 최미정, 「재미한인 여성수필의 공간과 젠더지리: ‘차이’와 ‘사이’, ‘탈장소」, 『한국문학과 예술』 제40집, 사단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1; 이은선, 「한국 근대 추리소설 장르의 젠더 지리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60권 2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21; 서승희, 「포스트/식민 여성성장소설의 젠더지리: 박화성의 『북극의 여명』과 『벼랑에 피는 꽃』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김경민, 「제국의 시대를 여행한 여성들」, 『우리말글』 제96집, 우리말글학회, 2023; 안서현, 「젠더, 서사, 지도: 김말봉의 초기 장편소설에 대한 ‘지도 그리기’의 시도」, 『한국근대문학연구』 제47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23; 최미정, 「‘사이’, 접촉과 변용의 젠더공간: 재미한인 여성수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제48집, 사단법인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23; 김나현, 「동시대 문학에 나타난 초국적 노동이주의 모빌리티 정동」, 『International Journal of Diaspora & Cultural』 15-1,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2025; 박신혜, 「젠더화된 공간의 균열과 재구성: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131집, 한국언어문학회, 2025.

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해석은 공간을 구성하는 젠더화의 기제를 드러내고 그것을 해체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젠더지리학적 접근을 통해 문학 공간(장소)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독해한 것이지만, 연구의 방법이 자칫 ‘여성적 장소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으로 환원될 소지가 있다.

둘째로, 한국의 구체적 역사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내포된 젠더의 지리를 조명하는 경우에도 작품의 지리적 특성이 대체로 서사적 재현의 층위에 머물게 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에 관한 연구(2021)는 재일조선인 여성의 몸과 주체성이 어떻게 공간을 통해 구성되는지 논한다. 주인공 ‘선자’를 구속하는 전통적 여성상이 개인적이고도 역사적인 갈등 속에서 협상되고 극복되는 양상이나 공/사 이분법을 넘는 새로운 ‘집’을 창출하려는 인물들의 의지에 관한 분석은 충분히 납득되지만,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로컬리티로 굴절·변용되어 개인의 몸과 삶이라는 미시적 스케일에 작용하는 국면들이 여성의 장소(이동)를 바탕으로 한 캐릭터 분석의 층위로 다소 기울어진 측면이 있다. 한편 이러한 역사와 몸의 결절지라 할 수 있는 ‘기지촌’ 공간에 관한 연구(2021)는 2000년대 기지촌 소설 재현의 방식이 한국 기지촌 서사의 계보 속에서 일정 부분 달라진다는 점을 포착하여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기지촌’이나 ‘기지촌 여성’은 논자의 말처럼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되었다기보다 젠더화된 공간/주체 그 자체로 여겨지고 있고 연구의 주된 내용 또한 각 작품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 이는 재현 층위에서 관찰되는 변화에 주목하려 한다는 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긴 해도 그러한 차이를 보다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학/연구 담론장의 역학이나 변화가 고려되지는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⁸⁾

8) 차미령은 2000년대 접어들어 ‘기지촌 소설’ 연구 분야에서 재현 주체(작가)의 젠더의식이 유의미한 참조점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서발턴 재현에서

위와 같은 특성들은 문학 연구에 젠더지리학을 도입할 때 연구의 대상과 범주를 의도치 않게 한정짓는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여성적 장소들을 통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억압, 그리고 그러한 공간성에 균열을 내는 여성의 행위성이나 정체성의 지점들을 드러내는 것이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과 별개로, 젠더화된 공간 경험이나 주체성에 대한 해석이 순응과 저항, 안주와 탈주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같음됨으로써 정작 그러한 사이공간이 가진 역사적 모순은 상세히 다뤄지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의 몸과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구조화하는 미시스케일의 공간과, 이데올로기와 역사를 만들고 굴절시키는 거시스케일의 공간의 교차를 전면화하는 작품에 접근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의미화의 구도(‘한계’와 ‘가능성’)를 산출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젠더의 관점에서 문학 속 공간의 속성을 정리하고 해석하는 일은 작가가 만든 서사 내적 정합성의 세계(내러티브, 캐릭터, 재현된 사회 등)를 필연적으로 초과(해야)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체성과 권력의 문제, 관계성과 구체성에의 착목이라는 젠더-지리학의 문제 의식과 충분히 접목된 결과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문학 연구에서 ‘젠더지리학’ 또는 ‘젠더의 지리’라는 용어는 안착되었다고 볼만하나 그러한 개념 또는 관점을 통해서 도출되는 연구의 결과는 다소 패턴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인은 일차적으로 한국에서 소위 개론서 역할을 하는 몇몇 저작에서 기본적으로 문제제시하는 사적 공간 탐색이라는 주제에 계속해서 머무는 경향, 그리고 이들 저작에 등장하는 개념이나 표현을 반복해서 소비하거나 앞선 연구

작가와 재현 대상 사이의 거리가 만드는 서사적 특성과 양자의 절합 양상에 주목한 바 있다(차미령, 「여성 서사 속 기지(촌) 성매매 여성의 기억과 재현: 강신재·박완서·강석경 소설과 김정자 증언록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58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2000년대 이후의 기지촌 소설은 역사적 사건에 접근하는 비경험 세대의 인식이나 포스트메모리 담론,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 작가들이 보이는 ‘역사’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논의 속에서 보다 풍부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의 분석틀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향에서 온다.⁹⁾ 물론 이러한 난점들은 한국 문학 연구에서 젠더지리학적 접근이 활용된 지 약 십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거칠게 조망한 결과일뿐더러, 어떤 이론이든 그것이 익숙한 연구 방법론으로 인식되기까지는 특정한 해석의 언어나 쓰임의 방식이 일정 정도 공유되고 누적되는 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선행연구의 성과가 문학을 대상으로 하는 젠더지리학적 통찰의 의미를 형식화하거나 추상화하는 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일단 ‘젠더의 지리’를 말하려는 연구에서 페미니즘 인식론이 충분히 관철되고 있는가에 관한 고찰이 동반되어야 한다. 문학과 젠더의 지리가 어떻게 교차하며 그려지는가를 살피려면 필연적으로 신체를 포함한 성차화된 공간 경험과 정체성, 권력의 문제와 만날 수밖에 없다. ‘지리’라는 말에 함의된 공간의 관계성과 구체성을 분석하는 일이 서사 내적 정합성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작가와 작품, 문학을 둘러싼 당대 사회와 담론장의 역할을 향해서도 뻗어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론적 다층성을 젠더지리학은 장점으로 갖는다.¹⁰⁾ ‘젠더’ 자체가 본래 역사적 분석을 통

9) 일례로 ‘탈장소’는 포스트식민·제국주의 시대의 이동과 여행을 논할 때, 혼종성, 디아스포라, 문화번역과 같은 ‘초지역적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이론들을 설명해주는 틀이다. 탈장소의 경험은 젠더 구분의 재협상을 추동하기에 젠더지리학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사례이다(린다 맥도웰, 앞의 책, 제8장 참조). 이 말은 권영빈(2018), 유인혁(2019), 유인혁(「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불균등발전의 도시공간과 이동성의 주체: 『오만과 몽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67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1), 최미정(2021), 양근애(「훼손당하(지) 않는 여성과 환향의 젠더지리: 역사드라마 <연인>(2023)을 중심으로」, 『한국연구』 16집, 한국연구원, 2024)의 연구에 등장하는데 주로 수사적 차원으로 쓰이거나 다소 자의적으로 활용된다. 아울러 많은 논문에서 젠더지리학을 정의할 때 “몸, 정체성, 장소, 권력 사이의 복잡한 관련성을 지도화하는 것”, “어떻게 다양한 억압이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공간 속에서 구현되고 또 이러한 공간을 통해 (재)생산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김현미의 정리를 반복해서 사용한다(김현미, 「페미니스트 지리학」, 『페미니즘의 개념들』(여성문화이론연구소, 동녘, 2017, 474쪽).

10) 서승희(2022)가 이를 잘 보여준다. 박화성의 소설 『북국의 여명』(1935)과 『벼랑

해서만 의미를 지니는 개념이라는 점도 이와 관련해 강조할 수 있다.

그러나 젠더의 지리를 다루는 연구이면서 젠더지리학이 비판했던 인간주의 지리학의 토양에 중점적으로 기대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¹¹⁾ 많은 연구에서 마치 캐치프레이즈처럼 등장하는 ‘장소란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 또한 1970년대 이래 공간 연구 분야나 비판지리학 전반이 공유해온 관점이므로 별다른 해석의 언어가 아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젠더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밝히는 일에 여전히 신체는 잘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새로운 방법론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도 그들과 의미있게 단절되게 하는 연구의 계보를 형성하도록 이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관점의 출현과 활용이 중요한 이유는 작품은 불변하는데 이전에는 감춰져 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¹²⁾ 젠더지리학에서 ‘여성적 장소들의 목록’은 필요하고, 여성의

에 피는 꽃』(1957)의 발표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변화가 사회주의자-지식인-여성의 성, 사랑, 이념의 재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의 이동과 제약, 장소성의 변화 등을 통해 분석한다. 문학과 젠더의 지리가 가질 수 있는 교차점을 다각도로 의식할 수 있게 하는 논문이다. 이처럼 젠더지리학의 방법론은 분석 대상 작품의 선별과 해석의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하기도 한다.

- 11) 인간주의(인본주의) 지리학은 1960년대 실증주의 지리학의 정량적 방법론에 대한 반동으로 출현했다. 잘 알려져 있는 에드워드 랠프, 이-푸 투안 등이 주창한 공간이나 장소 개념과 관련된다. 젠더지리학은 인간주의 지리학이 실존주의나 현상학과의 점점 속에서 실제적 장소 경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집’(심지어 ‘몸’까지)을 중요한 공간으로 다룬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장소감’을 인간의 보편적 특징으로 간주하고 그 속에 나타나는 차이는 비규범적 여성의 문제로 치환하고 있기에 비판의 대상으로 둔다(질리언 로즈, 앞의 책, 3장 참조). ‘여성의 장소’ 해석의 역사에서 인간주의 지리학의 공이 없지 않지만, 그러한 개념이나 방법론은 젠더지리학과의 차이점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2) 이선미는 박완서 소설은 달라지지 않지만 비평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이유를 사회적 지식 생산의 구조 변화와 그로부터 만들어지는 한국 근현대사를 향한 새로운 질문에서 찾는다(「박완서 소설과 ‘비평’: 공감과 해석의 논리」, 『여성문

저항적 정체성을 유동적이고 경계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 또한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으며, 그것을 통해 ‘서사공간’의 특성을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문학 연구에서 ‘여성 공간’이 아닌 ‘젠더의 지리(학)’라는 새로운 말을 가져다 쓰는 이유는 그러한 관점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특정한 구조와 해석의 지대가 있기 때문이며, 그렇게 해석된 것을 다른 작가(작품) 또는 기존 연구와의 관계 속에서 (재)정립하고 계보화하기 위해서이다.

이 글은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박완서 문학과 연구를 함께 읽으면서 문학과 젠더의 지리가 어떻게 만나 그려질 수 있는가를 보려고 한다. 젠더지리학 관점에서의 문학 연구이지만 일종의 메타비평의 형식 또한 갖는다는 점에서, 주로 작품 속에서 젠더화된 공간을 탐색했던 선행연구와는 다른 층위에서 문학-연구-방법론을 교차하고 연결한다. 젠더지리학이 단순히 ‘젠더’라는 프리즘으로 비춘 공간의 속성을 말해주는 분야가 아니라 그것들이 만들어진 역사적 기제와 현재적 조건을 함께 펼쳐 보임으로써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고 다른 공간을 마련하려는 실천에 닿아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박완서 문학’을 형성하는 젠더 공간의 의미를 다각도로 살피려는 이번 기획은 문학 연구에서 젠더지리학의 쓰임을 새로이 전망하는 데에도 유효할 것이다.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박완서 문학과 연구를 함께 읽으면서 여성서사의 존재 의의를 타진해보고자 한다.

3. 재현과 체현 사이: ‘문밖의식’을 말하는 방식에 관하여

박완서의 대표작 「엄마의 말뚝」(이하 「말뚝」)은 작가가 태어나 유년을 보낸 강화 개풍군 박적골과 그녀가 엄마를 따라 이주한 서울 현저동

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에서의 삶에서 출발하는 자전적 서사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말뚝」 연작은 식민지기와 한국전쟁이라는 격변기를 거쳐 탈냉전, 세계화와 같은 정치·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던 1990년대 초입에 이르는 시간 속에서 화자 ‘나’의 시선으로 관찰되는 엄마의 삶과 죽음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특히 「말뚝 1」(1980)에 나타나는 전근대-근대, 시골-도시와 같은 대립 구도는 엄마의 선택이나 행위에 동반되면서도 그로부터 거리를 두는 나의 주체성 형성 과정에 긴밀히 상관하면서, 근대성과 입사 (initiation)에서부터 소위 ‘문밖의식’으로 대변되는 독특한 인식 구조에 대한 해석으로 소설의 의미를 이끈다.

연작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을 보여주는 「말뚝 1」과 비교해, 「말뚝 2」와 「말뚝 3」(1991)은 「말뚝 1」로부터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뒤 모녀에게 서울살이가 어떤 방식으로 일단락되는지를 말해주는 후일담 같은 형식을 지닌다. 그러나 ‘말뚝’이라는 상징이 수렴되는 곳이 어머니의 신체와 죽음(묘비), 그리고 개별자로서의 어머니의 이름이라는 측면에서 박완서 문학의 근거를 이루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¹³⁾ 특히 딸인 내가 분투했던 삶의 현장들이 고작 “말뚝이 풀어준 새끼줄 길이”¹⁴⁾였다고 반추하는 대목은 연작 전체에 그려진 여성들의 일대기와 거기 맞물린 공간의 역사적 변천이 선형적이고 비가역적인 보편적 시간-공간관을 따르지 않음을 말해준다.

13) 「말뚝」 연작을 관통하는 것은 개별자로서의 ‘자기성’에 대한 갈망과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현실 사이의 낙차가 여성의 삶을 언제나 모순적 도정에 놓아둔다는 점이다. 권명이는 박완서의 소설을 통해 이러한 모순성이나 이중성이 단지 ‘여성’의 문제에서만 아니라 시민 계급의 형성이나 분단세대의 자기 의식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는 점을 말하면서, 그의 소설이 개별적/집단적 자기 정체성의 근거나 내용은 부제한데 단지 ‘익명성’으로의 투항만을 강요하는 한국 근대화의 메커니즘을 문제삼고 있음을 논한다(권명야, 「박완서: 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찾기」, 『역사비평』 45호, 역사비평사, 1998 참조).

14) 박완서, 「엄마의 말뚝 1」, 『엄마의 말뚝』, 세계사, 2018, 82쪽.

「말뚝 1」의 말미에 등장하는 ‘문밖의식’은 박완서 문학에서 바로 이러한 독특한 시공간 인식을 대변하는 말이다. 이주란 주체에게 필연적 주변성과 ‘되기’에의 의무를 부여하는데, 「말뚝 1」은 기본적으로 근대화 되지 못한 벽지와 경성 도시 공간의 비교 속에서 어머니의 우울증적 욕망을 계승(해야)하는 아이의 분투를 보여준다. 현저동의 빈한함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정작 그곳의 선주민인 ‘바닥 상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시골에 갈 때는 내리닫이를 입고 도시인의 성취를 전시해야 했던 기이한 인식 구조는 어머니가 딸을 통해 근대적·도시적 삶이라는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 자체이다.

일찍이 최경희가 논했듯 이 과정은 여성의 신체와 밀접하게 관련된 다.¹⁵⁾ 특히 ‘나’의 정체성의 기반이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다시 신여성으로 옮겨가면서 주목되는 여성들의 손은 가부장제하의 척박한 봉건적 육체노동과, 삶바느질과 같은 젠더화된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반(半)근대적 노동, 그리고 교육을 통해 공적 직업의 세계에 발을 디딘 근대인의 노동을 상징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손은 어머니가 나로 하여금 다다르기를 희망하는 ‘신여성’이 일면 다른 손들과의 비교 속에서 명징한 근대성을 표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지면서 신여성을 향해 가던 내가 선생님이 한 번도 잡아 주지 않은 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누구에게나 공평한 듯한 미소를 짓는 것에서 씩씩함을 느끼는 것은, 근대란 텅 빈 기표로 그저 끝없는 ‘되기’의 과정만 있을 뿐 결코 도착할 수는 없는 구조임을 내가 간파하도록 한다.

여기서 ‘문밖의식’은 사대문 안에 뿌리내리려 했던 고난과 어머니의 모순적이고 강제적인 ‘되기’의 과제가 만들어낸, 도달 불/가능한 근대성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입사 체험과

15) 최경희, 「「엄마의 말뚝 1」과 여성의 근대성」, 『민족문학사연구』 제9호,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1996, 127쪽.

죽음을 다루는 「말뚝 2」와 「말뚝 3」, 그리고 여타의 대표작들을 통해 이러한 의식은 박완서 문학을 이루는 본령으로 확장된다. ‘제발 되어지이다’라고 간절히 바랐던 서울살이의 말뚝이 ‘오빠’가 죽은 현장으로, 어머니의 훼손된 신체로, 묘비로 이행하는 연작의 과정, 그리고 전쟁을 겪은 나/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탐구하는 작품들을 통해 박완서 문학 속 인물들의 물리적이고도 인식론적인 위치는 복잡해진다. 문밖의식이란 단지 경계 바깥에서 내부를 향한 관찰·비판·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그래서 주체의 객관적이고도 윤리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하는 시간-공간 감각으로 자리매김되지 않는 것이다.

「말뚝」연작에서 출발해 박완서의 시·공간 인식을 보다 중층적인 것으로 파악한 사례로 송은영(2011)¹⁶이 있다. 이 연구는 모순적 근대성이나 근원적 주변성이라는 문밖의식 해석의 관습에서 나아가 박완서 문학에서 주된 배경이 되는 도시 그리고 도시적 삶이 전쟁과 여성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도시’가 박완서 문학에서 정주와 이주뿐만 아니라 전쟁과 피난, 학살과 생존의 세계를 직접 담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 착안해, ‘뿌리내림’과 ‘거리두기’가 공존하는 원형적 공간의식으로서의 문밖의식이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고, 정주에의 욕망을 위협하는 공포와 생존경쟁이 벌어지는 장소인 서울을 향한 혐오감이 배태되는 과정을 탐색한다(120쪽). 기실 『나무』(1970)과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와 같은 소설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죽음과 미8군 PX로 대표되는 생동력 넘치는 시장 풍경을 대비하면서 도시적 삶을 곧 천박한-생존자의 삶으로 겹쳐두는데, 이로부터 송은영은 박완서 문학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도시의 풍속을 거부하거나 거기에 저항하지 않고 공모하면서도 냉소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의 의미를 논

16) 송은영, 「‘문밖의식’으로 바라본 도시화: 박완서 문학과 서울」,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이하 논문 인용은 문맥에 따라 괄호 안 쪽수로 표기함.

한다. 이는 종래의 해석처럼 단지 도시 중산층의 가식이나 속물성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도시를 향한 애정과 혐오라는 이중의 정동이 상호 부착될 수밖에 없는 상태의 발로라는 것이다. “전쟁처럼 도망갈 수 없는 도시화의 운명과 자본주의화의 파괴적 힘으로부터 자신의 공간을 지켜야 하는 문밖의식”(132쪽)은, 순응과 저항, 안주와 탈주라는 이분법으로 주체의 행위성을 가늠할 수 없게 만든다.

욕망을 향한 이동은 이루어지나 욕망의 획득은 계속해서 지연되는 곳, 중심도 주변도 아닌 주체의 자리, 순결한 생존도 완전한 타락도 아닌 이들의 삶, 배제와 축출의 질서를 알아보지만 자신이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모순적 위치에 대한 자각이 박완서의 ‘문밖의식’을 구성한다. 앞서 최경희가 여성의 신체와 얽, 근대적 여성(성)의 구성이라는 물음으로 박적골-현저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면, 송은영은 여성의 지리적 사건이 전쟁과 결부되어 다다른 ‘문밖의식’이라는 모순적 위치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고자 했다. 전쟁은 텅 빈 근대의 자리를 무언가로 채우는 대신 악다구니의 생존 투쟁으로 그것을 형식화한다. 근대적·도시적 삶이라는 ‘근거’가 배제와 축출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생존을 향한 집념으로 구성되도록 만드는 전쟁의 질서는 박완서의 많은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주지하다시피 박완서 문학은 도시 개발의 현장과 도시의 변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형상화했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망각’을 특히 문제삼았다. 계속해서 송은영은 도시화의 진정한 결과가 오빠의 죽음과 역사적 상처를 흔적도 없이 지우는 망각에 있다고 말하면서(130쪽) 이러한 비판적 관점은 도시화에 관한 박완서의 의식이 도시 공간에서 겪은 한국 현대사의 경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으로 본다(133쪽). 그런데 박완서 문학에서 말하는 도시화와 망각이라는 주제는 비단 물신주의가 지배하는 천박한 도시 풍속을 좇으며 “현재의 잘 사는 세상의 기초가 묻힌 부분”¹⁷⁾

17) 박완서, 「작가의 말」,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세계사, 2017.

을 잊은 이들을 비판하려는 데에만 있지 않다. 완전히 흘러가 버렸다고 여겨지는 전쟁과 죽음의 시간이 발아래 퇴적되어 있어 언제든지 인물의 일상을 뒤흔들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 가을의 사흘 동안」(1980)은 박완서가 ‘도시화’라는 시·공간의 문제들을 견지하면서 ‘문밖의식’을 또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전시성폭력과 낙태라는 첨예한 사회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데에서도 의의가 있지만, 박완서 문학의 공간성을 특히 이질적이고 날카롭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소설은 1953년부터 1980년대 초에 이르는 삼십여 년의 세월 동안 농업 학교와 미군부대, 매음굴과 아파트 신시가지와 같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변주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가족사진을 찍는 사진관이 낙태 전문 병원이 되고, 사진을 찍기 위한 아늑한 ‘우단의자’가 낙태술이 이루어지는 수술대가 되는 것도 의미심장하지만, 교회당에 모인 여성들의 원인 모를 통곡과 콘크리트 바닥에 묻힌 죽은 아기들의 환상적 울음소리의 대비는 전시성폭력과 낙태라는 여성 도구화의 문제가 도시화의 시작과 과정, 결과에 촘촘히 얽혀들어 있음을 암시해 준다.¹⁸⁾

물론 이러한 형상화의 출발점은 여성의 신체와 기억·망각에 관한 박완서의 문제의식에 있다. 박완서 문학을 통해 전쟁이 여성에게 미친 피해와 영향을 논한 김은하(2018)¹⁹⁾가 이를 잘 보여준다. 민주화와 같은 한국사회의 정치·제도적 변화가 전쟁과 관련된 공식기억을 문제삼을 수 있게 하면서 개개인의 체험과 세분화된 사실로부터 대항기억을 구성하는 일련의 움직임과 연구가 있어 왔지만²⁰⁾ ‘젠더화된 전쟁’이라는, 여

18) 권영빈, 「냉소하는 도시와 이야기의 패치워크: 박완서의 「꽃을 찾아서」(1986)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9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4의 한 부분에서 이러한 소설적 특성이 논의되고 있다. 도시화와 낙태의 유비는 「꿈꾸는 인큐베이터」(1993)에서도 나타난다.

19) 김은하, 「젠더화된 전쟁과 여성의 흔적 찾기: 점령지의 성적 경제와 여성 생존자의 기억 서사」,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20) 이선미, 「전쟁 경험과 소설, 기억 서사의 변주와 해석의 계보: 박완서 소설의

성의 언어화될 수 없는 피해는 그 속에서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특히 전쟁이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은유가 아닌 실제로서) 전장으로 삼는다는 점은 전시성폭력과 ‘양공주’와 같은 역사적 사례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연구는 이러한 피해가 국가·민족과 같은 ‘우리’의 자부심에 상처 내는 불쾌한 기억으로 환원되면서도, 그러한 국가·민족이 양공주를 기반으로 한 점령지의 수혜 경제를 구축했던 모순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을 지적한다. 그리고 박완서 문학이 이들 여성에 대한 기억과 성찰을 시도했음을 말한다(316-320쪽).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은 김은하의 표현대로 “성폭력 ‘생존자’의 지옥같은 삶과 내면”(322쪽)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한국전쟁 당시 어느 외국인 병사에 의해 강간당한 주인공 여성은 자신의 낙태 경험을 바탕으로 원치 않은 임신한 여성을 돕는 낙태 전문의가 되어 삼십여 년간 집도한다. ‘나’가 인식하듯 이는 실제로 여성들을 ‘구원’하는 행위이기도 하기에 여성의 재생산권과 낙태죄에 관한 논의가 미려했던 1980년대 상황에서 젠더화된 의술의 정치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주인공이 낙태술을 감행하는 자기 자신은 물론 병원에 찾아오는 여성 모두를 ‘공평하게’ 증오한다는 점은 이 소설의 특별함을 짐작케 한다. 박완서는 이들 여성을 공감이나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신, 여성 몸을 향한 착취와 도구화가 전쟁 중에도, 이후에도 도시적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것이 ‘문밖의식’이라는 독특한 시간-공간 감각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김은하의 연구가 지적하듯 낙태란 여성의 몸을 섹스나 출산 도구로 삼는 가부장제의 유지·존속·강화에 가담하는 것이자,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는, 여성의 모호한 위치성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325-326쪽). 이러한 여성(성)에 대한 사유는 소설 말미에

전쟁경험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99집, 한국문화회, 2025, 204-205쪽.

서 주인공의 순수한 생명에의 소망을 좌절시키고, 마치 도시(화)의 잔인한 질서와 역사를 상징하는 듯한 여성들의 울음을 도시의 사운드스케이프로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시성폭력과 낙태술이 불러온 술한 죽음이 사라지지 않은 지층화된 기억-경험이 되어 이 땅을 이루고 있다는 소설적 자각은, 젠더화된 전쟁을 바라보는 작가 자신과 독자 모두를 공감이나 연민, 성토가 가능한 의식화된 자리가 아니라 그저 통곡이 가득한 곳으로 데려간다. 그렇게 여성들의 전쟁은 선형적이고 비가역적인 시·공간을 범람해 온다. 문밖의식이란 객관적이고 성찰적인 주체(성)를 쉽사리 정립할 수 없게 만드는,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항구적인 현재 인식이라 할 것이다.²¹⁾

박완서 문학이 지닌 이러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시간-공간 의식은 연구에서 ‘지도’로 그려질 수 있는 것일까? 문학 연구가 젠더지리학의 개념 양식에 기대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여성의 공간 경험이 몸, 정체성, 권력을 둘러싼 ‘지리적 사건’이 되는가이다. 이는 여성의 이동이나 도시(화)의 역사, 전쟁에 관한 구체적 기억을 통해 재현 가능한 것이 되기도 하고, 여성의 몸으로, 구조적인 폭력으로 체현되기도 (embodied) 한다. 「말뚝」 연작을 비롯해 도시(화)의 풍속과 질서를 주된 배경으로 삼고 있는 박완서의 많은 작품은 이전부터 지역(서울)의 문화사를 구성하는 자료로 원용되는 측면이 강했다.²²⁾ 그런데 최근 몇 년

21) 이러한 인식은 젠더지리학이 겨냥하는 ‘역설적 공간의 정치’를 떠올리게 한다. 페미니즘의 주체 또는 성적·정치적 소수자는 지배이데올로기의 모순을 체현하는 존재로 이들의 몸 자체가 다양한 차이가 마주치는 현장이 된다. 이들은 지배적 담론에 저항하면서도 그 담론을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항상 어딘가를 오가고 있는데, 이 움직임은 변증법적 통합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안과 밖을 동시에 점유하거나 양극단에 위치하는 모순성을 보여준다. 이는 지배적 주체가 만드는 경계에 포섭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회적 주체들을 재현 가능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계발할 수 있게 해준다(질리언 로즈, 앞의 책, 제7장 참조).

22) 예컨대 송은영, 「중산층 되기, 부동산 투기, 사회적 공간의 위계 만들기」, 『역사비평』 139호, 역사비평사, 2022; 이양숙, 「도시공간의 계토화와 불안의 정동: 박완서의 아파트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95호, 국어국문학회, 2021;

사이 당시의 ‘지도’를 활용해 작품을 분석하거나 인물의 이동 경로를 시각 자료로 구현해 삽입하는 연구도 새로이 등장했는데²³⁾ 이러한 접근은 박완서 문학 연구의 외연을 넓히고 방법론적 다양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울학’ 구축이나 ‘지도화’와 같은 실증주의적 성격의 연구 과제를 개별 작품을 통해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새로운’ 연구가 박완서 문학을 실제로 온전히 이해하게 하는가에 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는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젠더의 지리가 재현 불가능한 것이므로 실증주의와 결별해야 한다거나, 한 작가의 문학세계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에야만 그러한 시도가 가능하리라는 비판이 아니라, 박완서 문학에서 가능한 지도 그리기를 단일한 형식으로 오해하고 작품 또한 오독할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페미니스트 지리학자 도린 매시의 말처럼 지도는 완결된 동시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묘사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내던져져 있음’이기 때문이다.²⁴⁾

이근혜·안은희, 「1970년대 단편소설 속 일상 경험 분석을 통한 ‘집’으로서의 아파트의미」,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15권 제6호,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0; 전봉관, 「주거의 투기화, 투기의 여성화: 1970~1980년대 한국 서사에 나타난 북부인의 형상화 양상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5권 제4호, 대중서사학회, 2019; 박철수, 「박완서 소설을 통해 본 1970년대 대한민국 수도-서울 주거 공간의 인식과 체험」,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0권 제3호, 대한건축학회, 2014 등.

- 23) 대표적으로 유인혁의 연구가 있다(유인혁, 2019; 유인혁, 「외면과 가시화: 박완서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에 나타난 서울의 도시화 과정과 계급적 공간 실천」, 『한국문학연구』 제65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1; 유인혁, 2021). 박완서 문학 연구는 아니지만 안서현(2023)도 유사하다. 이러한 시각화, 지도화와 관련된 연구의 흐름은 2020년 전후로 등장한, 서사물에 재현된 근대 공간을 GIS(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복원하고 데이터화하면서 ‘문학지도’를 만드는 일련의 연구 성과나 흥행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과거에 고전문학 분과에서 활용했던 ‘문학지리학’의 방법론이나, 주로 식민지 시기 소설을 대상으로 분석했던 ‘심상 지도’라는 개념과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문학에서 ‘지리’라는 접근이 가진 한계와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박완서 문학은 한국-서울-근대화-여성-시민성을 둘러싼 지리적·신체적 감각에 대한 것으로 이 감각의 발원지는 전쟁이다. 전쟁은 ‘서울’이라는 로컬을 만들었고 도시(화)의 경관을 주조했으며 산업화 시대의 풍속을 정향한 원리이다. 전쟁이 전쟁미망인이나 양공주와 같은 당대 여성에 관한 ‘섹슈얼리티의 사회지리학’을 구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잘 알려져 있다.²⁵⁾ 한국사회를 부리는 전쟁의 건축술은 물리적·인식론적 층위를 아우르며, 특히 젠더의 관점에서 그것은 재현보다는 정동의 영역에 가까워진다.²⁶⁾

문학 연구에 젠더지리학의 관점을 도입할 때 ‘지리’라는 말에 깃든 지나친 구체성과 표상의 힘에 이끌려 실제 ‘지도’를 그리는 데 주력하기보다, 이동과 도착, 장소가 만들어내는 ‘사건의 정치’에 좀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것이 ‘문밖의식’이라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동이나 도착 불가능한 장소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다음 장에서는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공간성과 여성이라는 주체성의 기원을 전쟁에서 찾을 때 그것이 어떻게 지리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지를, 박완서 문학에서 가능한 지도 그리기의 방법과 여성적 장소를 다르게 바라보게 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24) 매시는 ‘지도의 실패’라는 표현으로 지도(화)에 대한 비판의 역사와 사례를 안내하고, 데리다의 ‘환대’ 개념을 통해 장소가 가진 관계적 정치의 가능성을 논한다(도린 매시, 『공간을 위하여』, 앞의 책, 207쪽, 333쪽).

25) 심진경, 『여성과 문학의 탄생』, 자음과모음, 2015, 187-189쪽.

26) 지리학과 정동의 관계에 관해서는 알리 라라·기예르미나 알토몬테·콜린P.애슬리·미셸 빌리스·산드라 모야노-아리자·리우 웬·토니D.샘슨, 권명아·이지행·권두현·윤조원·정다연 역, 『정동연구 지도제작』, 갈무리, 2025의 서문 참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간에 대한 ‘비재현적 접근’은 방법론적 개인주의 비판, 관계성·복잡성에의 착목, 신체성 중시, ‘사건(의 장소/행위자/이해관계/결과/정치/일시성)’에의 주목 등을 특징으로 갖는데, 인문지리학자 나이젤 스텔리의 연구(*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olitics, Affect*. Abingdon, Oxon; New York: Routledge, 2007)가 하나의 지침이 되고 있다(필립 바니니 편저, 김수정·김지혜·김진영·김현철·이보아·이지선·정예슬·정학성·최하니 역, 『비재현적 방법론: 연구를 재상상하기』,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참조).

4. '집'이라는 전시 구조와 '여성'이라는 불안

젠더지리학이 페미니즘 주체를 통해 하려는 것은 “‘타자성의 실체’를 이해하는 것과 주류 주체가 양산하는 배제에 대한 저항을 공간적 이미지로 해석해내는 것”²⁷⁾이다. 예컨대 『그 남자네 집』(2004)에 등장하는 ‘춘희’는 가부장제 바깥의 여성들이 타자의 자리에 배치되는 구조를 낙태술 현장과 여성 성기라는 특별한 공간적 이미지를 통해 바라보게 하는 존재이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주인공 ‘나’와 첫사랑 ‘현보’가 전쟁이라는 ‘벌레의 시간’을 각자/함께 감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양공주 춘희의 생존 서사가 장편의 또 다른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앞서 김은하의 연구는 이들 나와 춘희를 “여성서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인물이 두 개의 독특하고 상반되는 이들로 나뉘는 ‘분신’ 혹은 ‘짜패(double)’ 관계를 맺고 있다”(333쪽)고 중요한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 소설에서 ‘여성’에게 배정된 타자성의 실체와 배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공간적 이미지는 춘희가 낙태술의 현장에 나를 보호자로 데리고 가 수술 과정을 직접 확인해달라는 괴상한 장면에서 포착된다. 수술대 위에 드러난 “아름답지도 추하지도 신비롭지도 않”은, “짐승의 상처처럼 다만 검붉고 처참”²⁸⁾한 여성의 성기는 나로 하여금 처녀막으로 환원되는 신성한 여성 섹슈얼리티의 실체를 자각하게 한다. 그것은 여성에게 강요되는 정조 관념과 결혼 제도가 만들어낸 환상의 탈신비화를 동반한다. 춘희의 성기로서 나의 성기를 되비치고 춘희 또한 나를 통해 자신의 성기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교차 속에서, 여성의 몸은 이들 각자의 것이 아닌 강력한 젠더이데올로기가 체현된 공간으로 부상한다.²⁹⁾

27) 질리언 로즈, 앞의 책. 339쪽.

28) 박완서, 『그 남자네 집』, 세계사, 2017, 221-222쪽.

29) 이러한 장면은 「말뚝 1」에서 주인공 아이가 현저동에서 사귀 첫 친구인 ‘뽕장 이 딸’과 마주 앉아 서로의 성기를 사생하는 장면도 떠올리게 한다.

앞서 김은하의 연구가 말한 것처럼 박완서가 만년에 탐색했던 ‘양공주’는 민족의 수치심이라는 감산적 경험을 떠안은 채 수혜국의 경제와 가족 부양에 바쳐진 부조리한 몸이다. 전쟁이 생산한 이들 몸을 성애화된 몸 또는 훼손된 몸이 아닌 양공주 춘희와 가부장제에 순치된 나를 직접 마주 세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성격을 통해 형상화하는 이 장면은,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모습과 기능의 성기에서 권력을 둘러싼 서로 다른 젠더의 지리가 분화하는 순간을 조명하고 있다.

이러한 더블 관계는 젠더 연구에서 타자성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특성을 떠올리게 한다. 백인-이성애자-비장애인-남성이라는 지배적 주체의 속성이 비백인-성소수자-장애인-여성과 같은 비주류적 주체를 포함하면서도 배제하는, 모순적이고도 관계적인 힘으로 형성된다는 점과, 그러한 차별이 각 주체(성)와 행위성의 계열체를 따라 중층적으로 작동하며 상호 영향 관계를 심화시킨다는 점 말이다. 그런데 이는 공간의 구성 원리에도 적용된다. 개인의 신체에서 출발해 집(가정)-근린(커뮤니티)-도시(로컬)-국가-글로벌과 같은 상이한 층위의 공간적 스케일은 언제나 인접 공간과의 관계를 통해 정립될 수밖에 없다.

공간을 고정된 것으로 바라봤던 기존의 인식 체계에서 벗어나 그것을 사회적 상호작용의 장으로,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강화 또는 해체가 벌어지는 곳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20세기 후반 비판지리학의 출현 이후, 이제 공간적 사고는 ‘위치성’, ‘관계성’, ‘스케일’과 같은 개념으로 논의된다.³⁰⁾ 그 속에서 젠더지리학은 페미니즘 인식론과 젠더 연구의 방법론을 토대로 타자성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스케일의 상호 구성력과 어떻게 중첩되어 있는지 살피면서, 정체성과 권력이 만들어지는 구체적 현장으로서의 젠더의 지리를 가시화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박완서의 『도시의 흥년』(1979)을 다룬 오자은(2021)³¹⁾의 경우 젠더

30) 전중환·서민철·장의선·박승규, 『인문지리학의 시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31쪽, 40쪽. 오늘날 지리학은 ‘스케일의 학문’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31) 오자은, 「여성 경제 주체의 욕망과 여성 가장 되기의 (불)가능성: 박완서의 『도

연구의 관점에서 이러한 공간적 스케일의 조직 원리를 추출하고 있기에 주목된다. 이 소설은 한국사회가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 도시화·산업화라는 국가 재편의 기틀을 마련하고 소비자본주의를 대중 정치의 중심축으로 삼은 197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한 가족의 번성과 몰락, 거기에 개입된 처첩갈등, 물신주의와 성(性)의 결속 등 당시 연재소설로서는 소위 상업적이고 통속적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여실히 담은 장편이다. 그러나 박완서의 많은 소설이 그렇듯 이 소설도 ‘중산층 속물주의 비판’이라는 지배적 비평의 틀 너머를 향했을 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오자은은 ‘김복실’이라는 여성 인물에 초점을 맞춰 박완서 문학 연구에서 기존에 해석된 바 없는 ‘약탈적 여성 경제 주체’의 출현과 몰락의 사정을 풀어낸다.

소설에서 김복실은 전란 중 피난길에 오르지 못해 겨울의 텅 빈 동네에서 가혹한 생존 투쟁을 하게 된다. 먹고 살기 위해 빈집에서 김치나 고추장 따위를 훔치던 행위가 곧 공단 이부자리, 비단옷, 미싱, 장롱과 같은 귀중품을 탈취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전후에는 이것이 남의 육체를 사고파는 일로 전화하게 된다. 그녀의 ‘양색시 장사’와 포주 노릇은 전쟁이 만든 가부장의 부재라는 물적 조건에서 여성 경제 주체의 출현과 성장이 요구됐던 형편과, 앞서 김은하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던, 미군의 수혜국인 한국이 마치 국책사업처럼 운영한 성매매 경제라는 모순적 상황을 동시에 보여준다. 오자은이 “약탈적 경제 주체의 성장”(279쪽)이라 표현하는 김복실의 축재 과정은 남의 물건을 약탈하면 안 된다는 윤리 도덕이 ‘생존’ 앞에서 무력화되고, 성판매의 수치심이 국가주의적 시선으로 와해되는 과정과 겹쳐 있다. 연구가 말하듯 이는 김복실의 다음 행선지인 동대문시장 포목 사업에도 연결된다. 한국사회에서 ‘산업역군’으로 칭송받으면서도 가부장의 보호를 받지 않아 멸시와 착취의 대상이 되는 하층 여성 노동자들이 김복실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요

시의 흥년』을 중심으로, 『사이間SAL』 31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21.

컨대 “그녀의 경제적 성장 서사는 그녀가 자본주의 세계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인 약탈성을 완전히 체현하게 되는 과정”(285쪽)인 것이다.

한편 이 소설에서 여성 경제 주체에게 체현되는 이러한 자본주의가 ‘먹성’과 ‘입성’이라는 자체의 젠더화된 육체성을 지닌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김복실은 물론 쌍둥이 남매의 할머니가 가족 성원을 두고 집착하는 먹이기와 입히기는 주술적 강령과도 같은 것으로 반복되고, 인물들의 갈등 국면에도 물고 뜯거나 급기야 먹은 것을 게우는 장면이 많다. 오자은이 말한 ‘약탈적 경제 주체’로서의 김복실의 근거가 남의 육체를 사고팔거나 착취하는 데 있다는 것이 단지 서사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소설 전반에 깔린 동물적 이미지로도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상에 가려진 또 하나의 약탈의 구조이다. 가족들이 ‘먹성’과 ‘입성’의 수혜를 누릴 때 자본주의의 동물성과 야만성은 김복실 혼자만이 체현한다. 이는 ‘여성 가장’을 향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함정이다.

김복실은 축재할수록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는 역설적 상황에 처한다. 남편 ‘지대풍’은 물론 자식들까지 각기의 이유로 그녀를 기만하는데, 이러한 가족질서는 김복실이 모성의 상실뿐만 아니라 섹슈얼리티의 상실을 강요당하는 것에 이어진다(286-287쪽). 김복실은 자신의 능력으로 가부장의 권위를 흔들고 시모와의 권력 구도를 재편하는 주체적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가부장제가 ‘여성 경제 주체’라는, 사적 영역을 이탈한 여성을 옹아매는 방식으로서의 섹슈얼리티의 위기가 김복실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오자은은 김복실이 집안에 돈만 가져다주고 그 돈을 행사하는 권력만 가질 뿐 가족 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289쪽).

이러한 ‘여성 가장’의 모순적 위치성은 역사적으로 공/사로 젠더화되고 영역화되어 왔던 공간성이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조차 가장(假裝)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복실이

가부장제가 나누는 공/사 영역의 질서를 내면화한 결과로 적어도 그것을 흉내 내는 한에서는 가족 성원을 향한 젠더화된 권력을 부릴 수 있다. 김복실의 몰락은 그녀가 다른 방식으로 공/사 영역의 분리주의를 벗어나려 했기 때문으로, 오자은의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부분이다.

연구는 지대풍이 첩 일가와 더불어 김복실을 몰락시키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가 이용하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김복실의 축재 구조에 처음으로 개입한 남성적·공적 권력으로 그것이 ‘가짜’였음에도 김복실은 단번에 무너지고 마는데, 이는 한국의 분야별 경제 구조가 점차로 기업화·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종래의 음성적·재래적 자본 축적의 방식이 ‘공적’ 사업으로 이행할 때 관찰되는 어떤 종류의 ‘임계’를 드러낸다. ‘투기’, ‘장사’와 같은 사적 영역에서의 여성 경제 주체만을 용인하고, 그녀가 그러한 질서 너머를 향하려 할 때 곧바로 그녀를 처벌하는, 한국사회의 역사적이고도 사회·경제적인 젠더의 임계 말이다(291-295쪽). 김복실의 자리가 ‘약탈적 경제 주체’에서 번듯한 ‘사업가’로 옮겨가려 할 때 그러한 변화의 목전에서 정신적·육체적 불구라는 동물 수준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장면에서, 여성에게 편의적으로 요구되는 ‘여성 가장’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김복실의 ‘여성 가장’으로서의 삶은 ‘집’이라는 미시스케일의 질서가 어떤 방식으로 재편되는지, 그것이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려 할 때 어떻게 가로막히는지, 상위스케일의 질서가 하위스케일의 가능성과 한계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있는지 따위를 보여준다. 구조는 ‘허용된 것’과 ‘기대되는 것’으로 정의되는 권력의 표현으로, 그것은 행위자를 제한하고, 속박하고, 촉진한다. 행위자는 가능성과 제약 안에서 지정학적 선택을 하지만(할 수 있다고 믿지만) 결코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³²⁾ 집이라는 미시스케일의 영역에 있어야 마땅한 여성-

32) 콜린 플린트, 앞의 책, 59쪽.

가장은 ‘먹성’과 ‘입성’의 권력을 주체적으로 행사하지만 권력을 가졌으므로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체현하면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그녀가 공사 영역을 벗어나려 할 때는 인간성마저 잃게 하는 가혹한 처벌이 그녀를 기다린다. 그러니 ‘여성적 장소’란 단지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여성을 ‘여성적 장소’에만 머물기를 강요하는 물리적인 억압의 문제만도 아니다. 여성이 있는 곳, 가려는 곳이 어디든, 무엇이든 그곳을 혐오스러운 타자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메커니즘 자체를 문제시해야 한다.

앞서 2장에서 논한 것처럼 문학에 나타난 젠더의 지리를 살피려는 많은 연구가 집, 가정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억압을 보여주고 ‘여성적 장소’가 가진 문제점과 여성의 저항적 주체성을 분석하는 성과를 가져왔지만, 그러한 공간적 스케일이 다른 공간과의 관계나 질서와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문제시되지 못했을뿐더러, 한국의 역사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만들어지는 여성의 위치성, 관계성, 스케일에 대한 이해는 미진했다고 볼 수 있다. 박완서 문학은 특히 ‘여성적 장소’인 ‘집’을 단지 가부장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여성의 공간이나 거기에 순치될 수 없는 이들의 분열적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곳으로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여성’으로 집단화·인종화된 타자들이 가진 불안의 시초를 담고 있는 핵심 공간으로서 다루므로 이러한 공간의 구성 원리를 세심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앞서 『도시의 흥년』에 나타난 양색시 장사와 같은 김복실의 축재 과정은 1970년대 어떤 중산층 모델의 탄생 비화처럼 보이지만, 박완서 문학에서 여성의 몸을 매개로 한 자본 축적이 한국식 자본주의 작동의 한 양태라는 작가의 문제의식은 다른 작품에서도 발견된다.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이나 『그 남자네 집』과 같이 ‘기지촌’ 경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소설들, 또는 「꿈꾸는 인큐베이터」처럼 성감별 낙태가 곧 유산 상속의 조건이 되는 모습을 비판하는 소설들뿐만 아니라, 『미망』(1990)과 같은 전근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理財)에 밝으면서도 분수 이상의 것은 욕망하지 않는 깨끗한 송상(松商)의 근간이 ‘머릿방 아씨’라 불리는 ‘태임 모’의 성노예화와 관련된다는 점, 그것을 상징하는 돈궤를 주인공 ‘태임’이 마당 한 복판에 깨뜨리고 ‘동해랑 집’의 젠더 질서를 재편해나가는 모습에서 『미망』의 서사 또한 여성의 신체와 여성적 장소, 그리고 그것보다 상위 스케일인 셋골-송도-조선사회 등의 지형 변화를 다층적으로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³⁾

박완서 문학이 여성의 몸과 집, 자본을 상호 분리할 수 없는 계열체로 인식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도시의 흉년』 속 김복실은 그리 특수한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나/우리는 왜/어떻게 그러한 나/우리가 되었는가’라는 여성서사의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질문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소설 도입부부터 등장하는 ‘남매 쌍둥이는 상피(相避)붙는다’는 속설이 여아 살해라는 죽음정치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그것이 집에 기입된 젠더화된 전쟁의 질서를 표출하면서 여성이 항시 맞닥뜨리는 불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엄마’이자 ‘여성’으로서의 김복실의 정체성과 인정 욕구가 어떤 방식으로 불/가능한지는 그가 가진 공간과 주체적 행위성의 실체를 겹쳐 사유하는 여성주의 스케일 정치를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박완서 문학에서 가능한 지도 그리기의 방법과 여성적 장소의 목록은 이러한 역사적이고도 사회경제적인 여성의 삶을 통해 더 복잡화되어야 한다.

5. 박완서 문학-연구라는 여성주의 지식 생산의 지리

이 글은 젠더지리학의 관점을 활용해 한국 여성서사의 원천과 정치성

33) 『미망』을 다중스케일의 젠더 지리를 보여주는 소설로 분석한 연구로 권영빈 (2018) 참고.

을 보여주는 박완서 문학-해석의 조용 사례와 새로운 읽기의 방식을 탐색하고자 했다. 박완서 문학에 나타난 오지의 정동은 여성의 역사적 삶과 주체성을 일면 재현 불가능한 것으로 남겨두는 듯한 표현이지만, 그러한 복잡하고 다면적인 존재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연구가 있기에 우리는 거기에 다가설 수 있다. 동시대 여성서사가 우리 삶에 개입하는 방식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질문(이자 답)이 제시되는 과정도 그러한 수행을 통해서만일 것이다.

‘페미니즘 리부트’ 10주년이라 불린 근래는 페미니즘 물결이 새롭게 솟구치고 부서지고 나아갔던 면모들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기에 적기였고³⁴⁾ 박완서 문학 연구도 그러한 물결 속에서 확장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글의 취지는 ‘여성서사’의 부흥기를 박완서 문학과 연결해 기념하는 데 있기보다, 박완서 문학을 참조점으로 삼아 여성 문학과 거기 접근하는 방식을 다시금 전망해 보려는 데 있다.³⁵⁾ 여성서사의 존재 의

34) 작년 한 해 페미니즘 리부트 10주년을 기념하는 학회와 문예지의 기획이 여럿 있었고 특히 2024년 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부상한 남성성 연구나 담론도 그 속에서 함께 논의되었다. 한편 정희진은 ‘페미니즘 리부트’라는 말이 서울 중심주의가 반영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극우’ 남성 담론에서처럼 남성의 억압이나 일탈은 여성의 그것과 달리 처음부터 철저하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시선으로 다뤄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씩씩하게 언급한다 (정희진, 「인식론으로서 젠더」, 『오늘의문예비평』 139호, 오늘의문예비평, 2026년 봄호 참조).

35) 2026년 이상문학상 대상과 우수상의 수상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작품집 또한 ‘수상자 전원 여성’이라는 말로 홍보되었다. 실제로 지난 십여 년간 유력 문학상 수상자에는 여성 작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페미니즘 대중화를 기해 문학 연구 분야에서는 젠더의 관점에서 문학사를 다시 쓰거나 여성문학전집을 출간하는 등 의미있는 움직임이 이어졌는데, 이때 ‘여성서사’는 (학술 연구의 특성상) 동시대에 관한 것보다는 이전 시대의 작가와 작품을 분석하고 재평가할 때 논자의 문제의식을 효율적으로 나르는 개념으로 기능하곤 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의 축적과 별개로 오늘의 여성서사의 실제적 위상(위치)에 대한 것도 고민하게 된다. 페미니즘 페다고지의 기능을 부여받으며 동시대 문학의 선두에 섰(다고 보이)지만 그러한 긴급성과 기동성 속에서 작품과 비평은 충분히 읽히고 평가되었는지, 때로는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지 생각해볼 수

의는 여성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내포하는가 또는 그것의 형성을 유도하는가에 있고, 이러한 여성서사의 생산과 유통, 연구와 비평은 여성에 대해 읽고, 쓰고, 말하는 행위와 방법론이 요청되는 사회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간 박완서 문학과 연구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다.

예컨대 거대한 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의 삶이란 무엇인가, 가부장제의 화신인 엄마와 그런 엄마를 극복하기 위한 딸의 분투는 어떤 방식으로 (불)가능한가, 여성에게 결혼 제도와 가족은 무엇이며 왜 심문의 대상이 되는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신체와 섹슈얼리티는 어떻게 취급되는가, 노년 여성은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가는가와 같은 동시대 여성서사의 핵심 주제들이 박완서 문학과 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다. 여성에 관한 앎과 지식을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것 또는 대중적인 것으로 폄하해온 문학·문화사적 맥락과, 박완서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주부’로서 문단에 진입해 얻은 여성-작가라는 정체성 또한 페미니즘 리부트 현상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이다. 많은 박완서 문학 연구가 근대적 주체 되기의 (불)가능성, 타자성과 주변성, 인간의 이중성과 폭력성, 서발티니티와 같은 개념이나 표상들과 함께 여성서사의 원천과 정치성을 확인하고 논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 글에서는 특히 한국의 근대성과 결합된 젠더 정치를 신체 주체와 공간의 속성으로 쟁점화하고 있는 연구에 주목해 박완서 문학-해석의 지도를 선보이고자 했다.

한편 이 글 곳곳에서 언급한, 문학 연구에서 젠더지리학의 쓰임에 대한 비판은 여성과 공간(장소)을 그 자체로 재현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지리’라는 접근을 서사공간을 향한 실증에의 도전으로 인식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한 것으로, 이는 사실 젠더지리학이 공간을 바라보는 기존의 접근법에 문제 제기했던 부분과 일치한다. 공간을 곧 지표면의

있다. 여성문학의 계토화를 우려하는 비판적 물음을 참고하면서(노태훈·심진경·이현석·하재연·황인찬 좌담, 『한국문학은 여성의 것이 되었나』, 『자음과모음』 58호, 2023년 가을호) ‘여성서사’라는 말과 담론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완전한 재현으로 사고하는 습관, 그리고 ‘지도’가 환기하는 객관성과 “정확히 표기”하려는 욕망³⁶⁾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물론 문학 분야에서 ‘지리’나 ‘지도’는 ‘문학지리학’이나 ‘심상 지도’와 같은 여타의 서사 공간 연구 방법론과의 관계 속에 위치하기도 하기에, 이 글에서 말하는 젠더의 지리 또한 특정한 활용법에 간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물들의 신체적·공간적 경험이나 이동이란 자연 상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마치 지도 위의 ‘경로’처럼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 재현의 정치와 담론장 구성의 역학과 같은, 이미 다양한 ‘사건 관계’³⁷⁾ 속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젠더의 지리에 착목하는 연구라면 좀더 세심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남은 결론부에서는 문학 연구가 젠더지리학이라는 페미니즘 인식론과 방법론의 창조적 활용에 영감을 주는 두 개의 박완서 문학 연구를 살펴보려 한다. 젠더의 관점에서 바라본 문학-연구-공론장의 정동적 관계와, 지도화할 수 없는 것을 지도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들 연구는 문학과 연구, 방법론이 긴밀히 상호작용하며 서로를 견인하고 있는 사례로 참조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페미니즘이 비판적 공간 이론 속에 투입하게 된 계기는 지리학적 지식의 남성중심성에 있었다. 공간 ‘과학’으로서의 지리학이 (백인-비장애인-헤테로)남성이라는 동일자의 시각에서 구축되는 한 그 밖의 공간과 경험은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적 담론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도 없다. 2010년대 ‘여성서사’라는 용어의 확산이 젠더 관점에서의 문학 생산과 해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듯이 젠더지리학은 종래의 차별적이고 젠더무감성의 지식 생산의

36) 콜린 플린트, 앞의 책, 209쪽.

37) 젠더지리학에서 2000년대 이후 스케일 논의를 발전시킨 페미니스트 지리학자 샬리 마스틴은 ‘스케일 없는 지리’를 이야기하며 이 같은 점을 강조했다. 존 호턴·피터 크래프트, 김수정·박경환 역, 『문화지리학개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25, 372쪽.

지리를 문제 삼고 여성주의에 입각해 그것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이선미(2013)³⁸)는 박완서 문학이 당대 여성에 대한 이해를 새로이 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문학과 여성주의 그리고 재현의 정치간의 상호 영향관계를 살피고자 할 때 도움이 된다.

이 연구는 박완서의 『휘청거리는 오후』(1976)를 “결혼의 젠더적 의미를 탐구하는 보고서”(590쪽)라는 관점에서 읽는다. 이때의 ‘보고’는 단지 이 소설이 결혼제도를 둘러싼 풍속과 여성들의 심리를 세밀하게 관찰했기에 붙은 수사적 차원의 말이 아니다. 여성에게 결혼이라는 신분 상승의 계기와 그러한 선택에 도사리는 함정, 그리고 평등한 결혼 생활이라는 페미니즘의 이슈를 과학적·객관적으로 형상화해 여성 삶에 관한 이해를 확장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즉 이 연구가 눈여겨본 것은 『휘청거리는 오후』의 내용에만 있지 않고 당시 신문연재소설이라는 대중 미디어를 통해 박완서 문학이 여성에 관한 일종의 공론장을 조성했다는 데 있다. 이 소설의 대중적 성공은 작가가 사회적 현안을 서사화하는 데 기민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577쪽) 박완서가 여성의 ‘현실’을 ‘해석’하는 방식이 “사회적 사실의 의식적 기원”(578쪽)을 좇는, 무적이거나 총체적이고 고고학적인 차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연구는 1970년대 청년문화와 고학력 여성의 등장과 같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결혼제도가 여성 개인이 아닌 가족 전체의 삶을 변동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었음을 설명한다. 국가주의 경제개발계획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중산층’이라는 계급적 상상이 당대 소비대중문화를 이끌어가던 시점에서 결혼은 가족의 더 나은 재생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된다. 문제는 현실이 추동한 결혼 시장의 폐단이 과도한 욕망과 낭비벽을 가진 ‘미혼 여성’의 문제로 환원되어 이들이 비난과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연구는 『휘청거리는

38) 이선미,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 소설: 『휘청거리는 오후』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51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오후』가 물신주의와 속물성을 대변하는 듯한 ‘초희’를 풍요로움을 향한 집착적 경쟁에서 내몰리지 않으려는 “자기 시대의 논리”(585쪽)의 수호자이자 “평범한 국민의 초상”(585쪽)으로, ‘낭만적 사랑’에 근거한 결혼을 추구했으나 자유연애가 모순적으로 품고 있는 정조 관념의 구속에서 버린 ‘우희’를 억압적 젠더 질서의 희생자로 ‘해석’하고 있음을 말한다. 특히 딸들의 아버지인 ‘허성’은 구세대이면서 한국사회의 근대성이 선택적이고 편의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를 유비하는 인물이다. 연구는 이 소설에서 딸들의 마치 개인적이고도 주체적으로 보이는 선택들과 중산층 가장으로서의 허성이 가진 모순적 근대성이 결국 자본주의 질서와 젠더 구조라는 한국의 문제적 기반을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음을 지적한다.

박완서가 이러한 형상화로 하고자 했던 것은 허영심이나 도덕적 타락이라는 명목으로 미혼 여성을 비난하는 풍조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여성’이 매개되는 방식이나 양상 자체를 들추는 것이다. 이선미는 이 소설이 과도한 소비 욕망과 경쟁 심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중산층의 현실을 적확하게 그리면서 “여성의 사회적 존재방식”(602쪽)을 묻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대중의 폭발적 지지 속에서 문학이 ‘여성’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담론 공동체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 다시 말해 “1970년대 ‘여성’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식의 지평”(604쪽)을 마련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다.

이 연구의 특징은 박완서가 소설을 통해 여성을 ‘해석하는 방식’을 ‘해석’한다는 점이다. 박완서 문학은 종종 여성 인물들이 보이는 수동성과 분열성 탓에 지배이데올로기를 해체하는 데 실패하는 서사로 인식되곤 했고, 특히 기층 여성의 재현에 몰두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1990년대 페미니즘 독법에서조차 비판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연구가 작가-작품-당대성의 연결고리를 해석하는 방식을 참고하면, 여성의 ‘현실’을 향한 작가의 과학적·객관적 탐구가 어떻게 여성 독자와 만나는

지, 그로부터 재편되는 동시대 ‘여성’에 관한 얇이 어떻게 ‘여성주의 지식 생산의 지리’를 구성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로부터 ‘여성서사’의 존재 방식과 의의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의 ‘과학적’·‘객관적’이라는 말은 페미니스트 지리학이 비판하는 ‘사회·과학적 남성중심성’과 ‘미학적 남성중심성’의 구성 요건을 전유한 표현이다.³⁹⁾ 이선미는 이전 연구에서도 박완서 문학이 당대의 문단이나 비평가, 연구자로부터 적극적으로 읽히기보다 대중 독자의 지지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한다.⁴⁰⁾ 그런데 이때의 ‘여성 독자’에게 부착된 ‘대중성’에는 흥미본위의 읽을거리에 대한 탐닉, 인간 삶에 관한 ‘총체적’ 재현과는 무관한 오락성 추구에의 힐난이 들어서 있다. 이는 민중·민족문학을 위시한 당대 주류 비평의 문제만은 아니다. 여성주의 비평에서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이나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사회계약에 ‘젠더’라는 토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가와 관련된 논쟁이 있었듯이, 여성의 억압적 현실에 대한 재현은 ‘본격적’인 내용과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박완서 문학에서 여성 인물이 선택하고 수호하는 결혼이나 중산층 가족은 단지 가부장제에 귀속되어 생존(해야)하는 여성의 취약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해령은 “민주주의가 부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제도와 문화 속에서 언제나 위태롭다는 것을 그려낸 몇 안 되는 작가”⁴¹⁾로 박완서를 평가하는데, 그가 그리려는 가부장제와 중산층 가족 모델이 비혈연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자본의 분배나 공동 소유, 그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 등을 시

39) 이 두 가지 남성성은 로즈가 지리학적 남성성을 설명하면서 개념화하는 것들이다. 사회·과학적 남성중심성은 ‘투명하게 실제적인 지리적 세계’를 상정하고 거기 접근하면서 권위를 획득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고, 미학적 남성중심성은 타자에 대한 억압을 통해 ‘총체적 지식’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질리언 로즈, 앞의 책, 49-50쪽).

40) 이선미(2011), 52쪽.

41) 이해령, 「박완서와 함께 왼쪽으로 한 걸음」, 『문학동네』 제106호, 문학동네, 2021년 봄호, 111쪽.

현대에 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성찰, 상상의 방향이 소유적 개인으로서의 ‘근대 주체’가 맞닥뜨리는 ‘분배의 정의’이다.⁴²⁾ 박완서 문학을 통해 ‘대중성’ 개념과 여성의 지성사를 다시 세울 수 있듯이⁴³⁾ 여성주의에 입각해 과학성과 보편성의 개념 또한 재고할 수 있다.

한편 매시는 문화인류학자 요하네스 파비아의 논지에 따라 기존의 엘리트-남성중심적이고 차별적인 지식 생산의 지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연구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것, 즉 ‘거리두기’ 행위와 관련된다고 지적한다. ‘인식자(knower)’와 ‘인식 대상(known)’ 간의 거리가 개념적·체계적으로 만들어지고 반복됨으로써 인식 대상은 ‘다른 시간대’로 옮겨지고 ‘지식’은 이들과 원거리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지도화, 질서화, 기록화와 같은 분류적·재현적 접근법이다. 파비아는 이러한 방법론의 체계모니에 도전하는 과정적·물질적 이론의 요소들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았고, 앞서 이야기한 스텝트의 비재현적 이론도 이러한 맥락에서 언급된다.⁴⁴⁾ 문학에서 ‘젠더의 지리’라는 연구 대상이자 방법론이 서사공간의 시각화(지도화)로 협소하게 인식·활용될 때 인물의 공간 경험이 의도치 않게 재현 완료된 것이나 경로로 간주되는 이유도 매시와 파비아의 지적한 거리두기의 효과이다. 그렇다면 2차원 지도로는 그려질 수 없는, 그야말로 ‘위치의 정치학’인 젠더화된 신체적·공간적 경험과 이동은 어떻게 ‘지도화’될 수 있는가?

주지하다시피 박완서 문학은 전쟁 중에 겪은 혈육의 죽음을 반복적으

42) 이해령, 「빛나는 성좌들: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집, 상허학회, 2016, 444-445쪽.

43) 오혜진, 「할리퀸, 『여성동아』, 박완서: 1980년대 여성 독서사와 ‘타자’들의 책읽기」, 『원본 없는 판타지: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오혜진·박차민정·이화진·정은영·김대현·한채운·허윤·이승희·손희정·안소현·김효진·김애라·심혜경·조혜영), 후마니타스, 2020 참조.

44) 도린 매시, 앞의 책, 146-149쪽. 페미니스트 지리학자들이 신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감정, 정동, 체현 등의 개념과 접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이다.

로 다루면서 거대한 폭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삶에 관한 사유를 다각도로 보여준다. 앞선 장에서 언급한 ‘집’이나 ‘도시(화)’가 한국의 근대성이 여성 신체와 결합되어 있음을 포착할 수 있게 하는 공간적 스케일이라면, 생존자의 신체 스케일은 박완서 문학을 아우르는 화두인 ‘나/우리는 전쟁을 거쳐 어떤 주체가 되는가’에 접근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말뚝」 연작에서 박완서 문학의 본령을 찾을 수 있는 이유도 아들이 죽은 현장을 추체험하는 어머니의 몸과 이를 알아보는 딸의 존재성 때문이다. 피난하지 못하고 현저동 집에 숨어들어 전쟁의 화마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한 가족에게 닥친 불운, 그리고 그 무자비한 상황을 병상에서 다시 겪는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는 세월이 지나도 결코 완료될 수 없는 생존자의 특수한 시간-공간 경험에 대한 것이다.

권명아(2017)⁴⁵⁾는 박완서의 『나뭇』으로부터 이러한 생존자의 존재 양태를 보다 정치하게 읽고 논할 수 있는 지리적 방법론을 발견한다. 이 연구는 제도사이드나 성폭력 생존자의 증언을 둘러싼 해석과 기억·기념, 제도화의 역사 속에서, 부정주의나 망각의 정치에 맞서는 사유로 박완서가 재현한 ‘증강 현실적(augmented reality) 신체성’을 위치시킨다. 생존자의 현실 감각이 비일상적이고 이질적이라는 점은 트라우마 연구에서도 익히 논의되어 왔지만, 이 연구에서 말하는 ‘증강된 신체 감각’은 정신 착란이나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과 같은 병리적 접근으로 다 설명될 수 없다. 교육이나 산업 현장, 게임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실감형 디스플레이 기술인 ‘증강 현실’이 생존자의 신체를 더 적절히 설명한다.

증강 현실은 현실의 공간 위에 가상의 정보를 생성시켜 두 가지를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합성해 보여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구현된 시·공간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불투명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확장된 현

45) 권명아, 「증강 현실적 신체를 기반으로 한 대안기념 정치 구상: 애도 주체와 현실의 증강, 그리고 ‘완서학’의 원천」, 『여성문학연구』 제4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실'을 경험하도록 이끈다. 연구는 『나목』의 공간과 주인공 '이경'의 현실 감각이 정확히 이러한 증강 현실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고 있음을 논한다. 오빠들이 폭사한 고가(古家)와 수복된 서울 거리라는 공간 분할, PX에서 집을 향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날'의 공포, 그리고 마치 지도를 그리듯이 달리며 환영을 헤매는 인물의 모습에서 생존자의 몸이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는 보편적 시간성이 아닌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증강 현실의 공간성(신체성)으로 재구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7-199쪽). 이경이 트라우마인 죽음의 현장을 기억하려 할 때 현실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고가 곁에 심긴 은행나무의 떨리는 소리가 채우는, "사실적 세부를 휘발시키고 특유의 정동만을 남겨놓는"(198쪽) 대목에서는 생존자가 가진 폭력의 경험이 어떻게 이들 안에 신체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생존자의 증언을 들으려는 해석자가 거기에 어떻게 도달 불가능한지를 잘 말해준다. 요컨대 『나목』은 "전쟁과 전후라는 화해불가능한 상태의 현실이 겹쳐져 증강된 신체의 기록"(198쪽)인 것이다.⁴⁶⁾

권명아의 연구는 젠더지리학의 접근법을 통해 문학을 해석하는 한 방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박완서 문학이 특수하게 간직하고 있는 생존자 신체성을 국가폭력, 성폭력 생존자와 관련된 역사적 사유의 궤적 속에 위치시킨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수 있다. 레비와 아감벤, 버틀러, 지젝과 같은 서구 지식인의 제노사이드 담론 속에서 자칫 망각될 수 있는, "한국전쟁과 한국 근대사의 과정에서 진행된 소수자에 대한 폭력의 경험을 담은 서사"(186쪽)로 연구는 박완서 문학을 강조하고 '완서학'이라

46) 이렇게 보면 소설에서 이경이 무척 현실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이라는 점도 특별하게 읽힌다. 전쟁이 불러온 끔찍한 경험과 가부장제의 억압 속에서 이경이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시간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따르면 따를수록 이경 안의 비-시간성의 인력 또한 커진다. 『나목』에서 반복되는 은행나무의 심상은 이러한 이중의 시간성을 매개한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는 홀로코스트와 포스트메모리 담론에서 '사건의 시간'을 몸에 새긴 존재, 트라우마의 영구적 관찰자이자 '이후의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뤄지기도 한다(엘리자베스 로즈너, 서정아 역, 『생존자 카페』, 글항아리, 2021 참조).

는 이름의 지적 원천을 확인한다.

‘문밖의식’이라는 도시를 향한 감각도, 양공주의 성기와 여염집 주부의 성기가 각기 다르게 그려내는 삶의 지도도, ‘여성’이라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장소나, 문학이 여성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주의 지식 생산의 지리도, ‘전후’라는 도착 불가능한 세계도 단지 장소성 개념으로 해석하거나 2차원 지도로 시각화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러나 박완서 문학이 여성의 삶과 현실을 ‘오지’의 정동으로 보여 주면서도 그것을 ‘실감’하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공간과 장소를 ‘하는 방식(way of doing)’에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다. 공간과 장소가 없는 지리 요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⁴⁷⁾

지리학이란 “특정 주제에 국한한 지적 탐색을 요구하지 않는, 약간 ‘별난 학문’”⁴⁸⁾이라고도 일컬어진다. 지리학이 젠더, 인종, 계급, 세대, 로컬리티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 범주를 가로지르는 광폭의 연구 방법론이자 이들 간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다중스케일의 관점(multi-scalar perspective)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말해주는 표현이다. 한국 여성서사의 원천과 정치성을 논할 수 있게 하는 준거로서 박완서 문학-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범주들의 교차 국면에 주목하는 페미니스트 비판과 멀지 않다. 문학에서 젠더지리학적 접근은 교차성의 공간적 구성과 해석에 관한 것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박완서 문학과 연구는 한국 근대성의 구조를 촘촘히 뜨고 있는 젠더의 요소를 드러내고 인물들의 육화된 생존 경험을 당대의 사회사적 변화 속에 위치시키면서 그것을 오늘의 한국사회로 불러온다. 박완서 문학-연구라는 페미니즘 지식의 형성과 여성서사 사이의 문화 표현이 항상 최선의 것으로 느껴지는 이유이다. 한국 여성서사의 의미와 담론의 방향성은 이로부터 재평가되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47) 존 호턴·피터 크래프트, 앞의 책, 371쪽.

48) 콜린 플린트, 앞의 책, 42쪽.

참고문헌

1. 1차 자료

- 박완서, 『나목』, 세계사, 2018.
_____, 『도시의 흥년』, 세계사, 2018.
_____, 『휘청거리는 오후』, 세계사, 2018.
_____, 『엄마의 말뚝』, 세계사, 2018.
_____,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세계사, 2017.
_____, 『그 남자네 집』, 세계사, 2017.

2. 단행본

- 심진경, 『여성과 문학의 탄생』, 자음과모음, 2015.
전종한·서민철·장의선·박승규, 『인문지리학의 시선』,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알리 라라·기예르미나 알토몬테·콜린P.애슐리·미셸 빌리스·산드라 모야노-아리자·리우 웬·토니D.샘슨, 권명아·이지행·권두현·윤조원·정다연 역, 『정동연구 지도제작』, 갈무리, 2025.
콜린 플린트, 한국지정학연구회 역,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길, 2007.
도린 매시, 박경환·이영민·이용균 역, 『공간을 위하여』, 심산, 2016.
엘리자베스 로즈너, 서정아 역, 『생존자 카페』, 글항아리, 2021.
질리언 로즈, 정현주 역,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한길사, 2011.
존 호턴·피터 크래프트, 김수정·박경환 역, 『문화지리학개론』, 사회평론아카데미, 2025.

3. 논문

- 권명아, 「박완서: 자기상실의 ‘근대사’와 여성들의 자기찾기」, 『역사비평』 45호, 역사비평사, 1998, 389-410쪽.
- _____, 「미래의 해석을 향해 열린, 우리 시대의 고전」, 『박완서 문학앨범』(박완서·호원숙 외), 웅진지식하우스, 2011, 238-263쪽.
- _____, 「증강 현실적 신체를 기반으로 한 대안기념 정치 구상: 애도 주체와 현실의 증강, 그리고 ‘완서학’의 원천」, 『여성문학연구』 제4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183-208쪽.
- 권영빈, 「박완서의 『미망』에 나타난 (탈)근대공간의 건축술: 젠더지리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성(開城)의 탄생」 『여성문학연구』 제4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259-299쪽.
- _____, 「냉소하는 도시와 이야기의 패치워크: 박완서의 「꽃을 찾아서」(1986)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9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4, 33-65쪽.
- 김은하, 「젠더화된 전쟁과 여성의 흔적 찾기: 점령지의 성적 경제와 여성 생존자의 기억 서사」, 『여성문학연구』 제4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13-341쪽.
- 김현미, 「페미니스트 지리학」, 『페미니즘의 개념들』(여성문화이론연구소), 동녘, 2017, 474-496쪽.
- 서승희, 「포스트/식민 여성성장소설의 젠더지리: 박화성의 『북극의 여명』과 『벼랑에 피는 꽃』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154-183쪽.
- 송은영, 「‘문밖의식’으로 바라본 도시화: 박완서 문학과 서울」,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111-138쪽.
- 신수정, 「자아의 서사, 소설의 기원: 진경시대 예술가의 초상」, 『저녁의 해후』(박완서), 문학동네, 2016, 447-472쪽.
- 오자은, 「여성 경제 주체의 욕망과 여성 가장 되기의 (불)가능성: 박완

- 서의 『도시의 흥년』을 중심으로, 『사이間SAI』 31호, 국제한국
문학문화학회, 2021, 275-306쪽.
- 오혜진, 「할리퀸, 『여성동아』, 박완서: 1980년대 여성 독서사와 ‘타자’들
의 책읽기, 『원본 없는 판타지: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
국 현대문화사』(오혜진·박차민정·이화진·정은영·김대현·한채
윤·허윤·이승희·손희정·안소현·김효진·김애라·심혜경·조혜
영), 후마니타스, 2020, 211-258쪽.
- 이선미, 「박완서 소설과 ‘비평’: 공감과 해석의 논리, 『여성문학연구』
제25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29-58쪽.
- _____, 「‘여성’의 사회적 해석과 1976년의 박완서 소설: 『휘청거리는
오후』의 대중성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51집, 한국
문학연구학회, 2013, 571-612쪽.
- _____, 「전쟁 경험과 소설, 기억 서사의 변주와 해석의 계보: 박완서
소설의 전쟁경험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99집,
한국문학회, 2025, 201-246쪽.
-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집, 상허학회, 2016, 409-454쪽.
- _____, 「박완서와 함께 왼쪽으로 한 걸음, 『문학동네』 제106호, 문학
동네, 2021년 봄호, 106-121쪽.
- 정희진, 「인식론으로서 젠더, 『오늘의문예비평』 139호, 오늘의문예비
평, 2026년 봄호, 145-160쪽.
- 차미령, 「여성 서사 속 기지(춘) 성매매 여성의 기억과 재현: 강신재·박
완서·강석경 소설과 김정자 증언록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58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7-43쪽.
- 최경희, 「「엄마의 말뚝 1」과 여성의 근대성, 『민족문화사연구』 제9호,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1996, 118-139쪽.
- 최진석·최새훤·김병준·허예슬·최주찬·황호덕, 「두 박완서, 제도와 젠

더 혹은 디지털 작가 연구의 시좌: 2010년대의 『여성문학연구』
를 중심으로, 『개념과 소통』 제34호,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24, 131-175쪽.

<Abstract>

Mapping the Sources and Politics of Women's Narratives

Kwon, Young-Bin*

This article employs a feminist geographical perspective to explore new modes of reading and the correspondences between literature and interpretation that illuminate the origins and political dimensions of Korean women's narratives. Women's narratives, which have emerged as a catalyst for the “feminism reboot,” derive their significance not only from engaging with social discourse on women but also from generating it. Moreover, the production, circulation, research, and criticism of these narratives are closely intertwined with social realities that demand new practices and methodologies for reading, writing, and speaking about women.

The literature of Park Wan-seo has contributed not only to bringing to public attention the core themes of contemporary women's narratives—such as the lives of women who have survived violence, patriarchy and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the realities of ideological apparatuses such as marriage and family, and female bodies and sexuality—but also to foregrounding the literary and cultural-historical contexts in which stories about women have been historically regarded as private and informal.

This article aims to map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 Dong-A University.

interpretation in Park Wan-seo's work, focusing in particular on scholarship that frames gender politics intertwined with Korean modernity as a question of embodied subjectivity and spatial conditions.

Meanwhile, feminist geography provides an appropriate methodological framework for reading Park Wan-seo's literature, which foregrounds questions of space and subjectivity, including the female body, alongside existing scholarship informed by feminist theory. Building on this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how literature and the geography of gender intersect and are represented, with the aim of reconsidering the methodological application of feminist geography in literary studie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have primarily focused on gendered spaces within literary texts, this article adopts a meta-critical approach that connects literary analysis, existing scholarship, and methodological inquiry from the perspective of feminist geography. Through this approach, it analyzes the multiple meanings of gendered space that shape Park Wan-seo's work and reinterprets prior research to explore the significance of women's narratives and the foundations of feminist practice within her literature. In doing so, the study seeks to propose an alternative approach to understanding feminine spaces and literary mapping.

Key Words: feminist geography, women's narratives, the body, embodiment, methodology, mapping, meta-criticism

■ 논문접수 : 2026년 03월 29일

■ 심사완료 : 2026년 04월 18일

■ 게재확정 : 2026년 04월 18일

